

果然嶺東便의 寺有林보다는 慈心이 생길 만치 되었다 하
 木은 落落連抱의 松、檜、檜木等의 蔚蔚密密하야 蒼空
 을 覆수업다 이 森林이 朝鮮人의 程度에 이만치 茂盛하
 게 되긴은 理由가 있다가 이 山은 由來로 無主空山이 아니었
 고 黃鵬封山이란 名稱과 勢力을 가진 朝鮮에 有名한 山
 林이 었다 感古의 懷를 가지고 野心은 清溪의 淸을 사
 라여 러가지 風致를 구경하며 葛蘿이란 山村에 到着하니
 二里의 路를 行하였다 그 곳으로 부러져 차나 가면 左右 山
 谷에서 樹齡數百年의 連抱赤松을 伐採하야 山과 如하
 積置하고 말구타하는 山中機械로 輸出한다 나는 이와가
 이 되었다

처세간 하였다 이 山이 大學演習이 마하기 무렵을 演習
 하는 가 하였더니 아 마도 採伐을 演習하는 가 하였다 葛
 幕으로 부러 一里의 沙泉里에 到着하였다 洞里의 勢
 를 觀察하니 別로 興旺처는 못하나 마 水田도 多을 짓마는
 第一壯觀인 것은 後의 山이 高峻한 곳에 山腰에 누비듯
 을 지어 노은 것은 山畑이다 보기도 異常하지만은 강기도
 성어 덩겅다 이것이 즉 一山田의 生命을 이어가는 線路이
 다 오늘은 九里를 行하야 驛跡地方 瑞和 面加田里에 到着
 하야 宿泊하기로 하고 旅館을 定하니 午後六時三十分
 이 되었다

廣 積 寺 記 尋

劉 啓 勳

내가 廣積寺(俗稱桃李所)의 이름을 듣고 한 讚가 보
 러 하던 때는 只今으로 부러 九年前 學童시절 인 讀하였
 스나 無時로 循變하는 世態는 二의 容易하게 閑遊의
 餘暇를 잊지 못하고 煩惱의 幻夢中에서 近十回 星霜
 을 一瞬電光가 치보내었스니 而今에 回想하면 昔기

도 하였지만 愛惜한 表情은 山河의 雄大 廣闊함에 도 비
 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다가 이제 다시 못낼 小暇를 憐悻
 하여 年年時時로 宿望이든 雪峯山 廣積寺를 차자 볼
 조호機會를 얻은 나는 넘치는 기쁨에 二의 心情은 참
 부어라 形容할 수 업는 境遇이 었다 지난 밤까지 흐리더

분하던 天空은 가 버히도는 春風을 마저 놀히며 날려
 가고 燿燿灼灼한 陽光은 宇宙萬象을 遍照하야 遠行
 을 祝福하는 듯이 清新하며 輕快한 心骨은 尋春客의 氣
 녀속 조호 志氣를 준다 極히 簡單한 行裝을 收拾하야 崔
 雲山、金雪樵 두 분과 가 치約六百年以上 高麗時代에는
 三千僧侶가 이 절에 集居하야 全國에서 大刹로 名稱하
 든 古寺이니 아 무리 李朝에 이르러서 衰微하였을 망정
 그 餘韻遺蹟이 아 었로 개 의 러나 하면서 새 사당이 臨溪
 어 구를 버서 나 든 세는 綠色天地에 躑躅花、櫻花가 間
 間히 서어 千紫萬紅總是 春句을 於焉之謂이 豪唱하
 게 하였다 大自然의 勝景을 노래하는 세 소의 長短을 맛
 취 隱隱한 西天의 雲峰山嶺을 바라 보며 羨慕다 望
 望으로 慶城平野의 市원한 氣運을 의 리 뜻코 似洋亭의 樓
 閣의 상은 險峻한 摩崖은 내가 어 림 성에 갈 때 비닐 쓴
 碑記 憶을 庶다 시자 아 내며 渾然中에 雄壯하고 나
 었다 垂楊陽堤를 지나 五六百兒童을 調導하야 普通
 學校를 見되 로 바라 보며 笑靨(蓬谷)을 지나 水洞區域
 에 들었다 老農의 말을 들으면 今年의 農節이 如干
 事인 라고 한다 往年에는 寒食前에 보리 밭갈이 놀다
 하 드니 今年에는 寒食 후까지 出糞하게 되고 요새

에야 耕田播種이 奔忙하야 合점은 농부들의 소모는 양이
 여겨 지게 보인다 우리 一行이 水洞을 지나 세 畧異
 常한 志氣를 주는 것은 里中에 長高한 直立木이 잇는 데
 이 것을 進士塚라고 한다 緣由는 李朝末 萊頃에 그 洞
 中에서 進士나 先達이 하나 나면 舉洞一致하야 이것
 은 우리네의 榮光이라 하며 及其也 誇張의 意味에서 胚
 胎된 말入자인데 舊時는 每年名節이 이면 그것들 中心
 상아 一大遊興場을 排設하고 五音六律 風樂에 應대
 (俗優)를 즐겼었다 하니 一般官民 班常上下階級이 다
 가치는 것이로되 其時 兩班네 들의 豪奢、遊蕩과 濫權
 跋扈한 어느 程度에까지 達極하였을을 可히 想像할
 수가 있다 漸漸中 村을 지나 北便을 바라 보니 炎夏에
 避暑하기 조호 뜻한 洞이 잇는 데 두 분이 말하기를 慈
 村의 이라고 하시며 옛적은 勿論 至今까지도 書堂
 生들이 거거나 가 讀書或吟詩를 마지 안는다고 한다 아
 사까지 淸涼한 날이 不時에 생명이 가오르며 淸하
 던 필원은 단면에 白蒸氣의 包圍를 하였다

언제나 언제나
속대우면 이내 마음